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성경: 누가복음 9장
23-26절

Tag: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눅9:23-26)

모든 생물은 생존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 생존본능은 매우 이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능을 모든 유전자에게 심어 놓으셨다. 구약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말씀이 12군데나 등장한다. 심지어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까지 하셨다. 그러므

로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 다른 생물들과 경쟁하며 더 번성하며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본능이라 할 수 있다.

생명처럼 신비한 것도 없고,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도 없다.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16:26)

온 천하 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가치로 따지자면 사람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소중하지만, 정작 나는 죽고 온 천하는 여전히 남는다는 점이다.(산천은 의구한데 인결은 간데없네.) 귀중한 나는 없어지고, 덜 귀중한 천하는 남는다. 이게 웬일인가? 뭔가 불공평한데? 왜 소중한데 없어지는 거야? 내가 목숨을 잃었는데, 천하가 유구한들 그것이 어찌 유익하단 말인가?

소중한데도 가장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남겨진 자들에게 가끔씩 기억되고 추억되다가 끝내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소중하고 가치있는 인생이란 말인가? 인생의 아이러니, 딜레마. (그래서 친절한 사람들이 망자를 기리는 각종 방법들을 연구해 냈다.)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대한 집념과 애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또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덜 소중한 온 천하의 유구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목숨과 온 천하의 유구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이 초월적으로 소중한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창조 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천하보다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영생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 왜냐하면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즉, 그토록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인데 예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되었다고 표현한다. (구원 받았다.) 스스로가 구사일생으로 생존경쟁의 지옥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는 결코 구출될 수 없는 지경

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는 뜻이다. 사람이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죽게 되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천하에 그 누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첫 단추일 뿐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전제 되어 있다. (믿음이란 구원의 시작일 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다.)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24절에서는 역설법으로 설명하셨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확한 워딩(자구)은 이렇다. 제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마치 헤엄치지 못하는 자가 물에 빠졌을 때를 상상하면 쉽다. 그는 발버둥 치지만 결국 죽게 된다. 그러나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면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결코 스스로는 살아나올 수 없는데도 스스로 살아나려고 애쓴다면, 결국은 죽게 된다.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풀어서 설명하자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산다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뜻이다. 구원에 관해서는 어떤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원리가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빼앗기든지 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이런 표현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다.)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려는 노력과, ‘만약 누군가에게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든지 하는 것’ 보다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누군가는 결국 마귀다. 마귀에게 속아서 허송세월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 세월을 빼앗기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결국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령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한다.

또 23절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소개되어 있다.

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

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없다.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가 맡아야 할 **영혼 구령의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직업의 사명이 아닌)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놓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처럼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분명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십자가임을 밝혀 주시는 말씀이 26절에 있다.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 나와 내 말은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담대히 예수님과 복음을 전파하자.

우리는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며,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Tag: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4:12)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시는 일. 말씀이 곧 예수님, 성령의 집.

각종 판단의 주인이 되신다.

말씀의 검의 역할

진위분별 - 진리, 진실(fact), 거짓(fiction), 가설(falsity)

선악분별 -하나님과 마귀/성경에는 분명하게 인격적 개념이다.

좌우분별 -복과 저주

사리판단 -일이 성사 될지의 여부

가치판단 -중한 정도의 여부

치해(治害;고칠 치, 해칠 해)판단

손익(損益;덜 손, 더할 익)판단

안위(安危;편안 안, 위태할 위)판단

1. 암송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하기 (PPT 이용)
2. ‘1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3. 짝을 이루어 암송하면 도전할 사람 손 드세요. -짝을 지어 암송케 한다.
4. ‘1번 말씀’(선창) ‘1번 말씀’(암송자 복창)
- 5.